

특별한 책의 탄생을 빛는 마법의 손

스튜디오 바프의 '북 프로듀서' 이나미씨

발상부터 내용 선택, 그림과 글의 조화, 책꼴과 지질, 활자, 인쇄, 감리, 교정까지 책의 탄생을 주관하는 '북 프로듀서' 이나미씨는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온 출판 관행에서 벗어나 있다.

"정보를 담은 그릇으로서 책의 운명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책이 소유대상으로서의 오브젝트라는 사실이죠."

정서적 감동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느낌이 중요하다. 종이라는 수공업적 환경에 하이테크를 결합한 바프의 책은 특별하다. 시각적 감각이 강조된 도록 《TV-전》은 브라운관 모양의 거울이 표지고, 목차는 리모콘 형식으로 꾸몄다. 어떤 것은 투명하게 비치는 재질 위에 글자를 인쇄해 글자들이 서로 겹쳐지게 책의 기본 개념을 파괴하기도 했다.

"읽기 전에는 문자도 그림입니다.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재료와 정보 안에서 뉘앙스를 읽는 감각이 필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새기는 디지털문서

직지프로젝트 진행중인 김민수씨

현대전자 선형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김민수씨(32)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공학도다. 낫이면 방진복을 입고 메모리칩 분야 개발에 몰두하는 김씨가 밤이면 우리 고전을 들여다보는 이중생활을 하게 된 것은 금속활자 때문이다.

"우리는 구텐베르크보다도 먼저 금속활자를 만든 민족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지심체요절》은 구텐베르크의 《성서》만큼의 중요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기술발전은 무엇을 담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김민수씨는 우리 문헌유산을 디지털 문서로 남기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세기의 금속활자는 디지털문서이기 때문이다. 작년 8월 1일 문을 연 김씨의 인터넷사이트(www.jikji.org)에 접속하면 《홍길동전》을 비롯한 고전 4권, 이효석의 <돼지>를 비롯한 단편 4편을 아스키문서와 한글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다. 원래 한 달에 한 작품씩 입력할 예정이었으나 퇴근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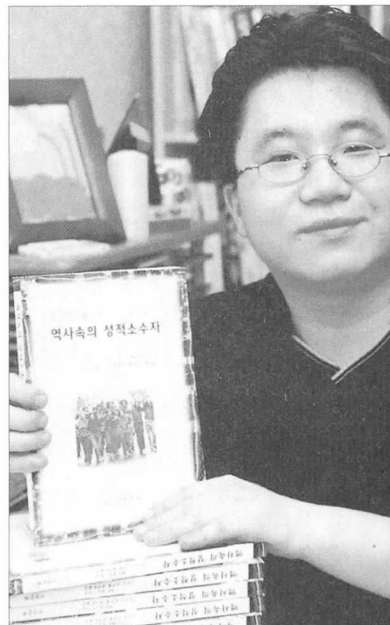
성적 편견의 완고한 벽 뚫고 '커밍아웃'

첫책 《역사 속의 성적 소수자》 펴낸 동성애 전문출판사 '이연문화'

'커밍아웃(coming out)'.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커밍아웃'한 출판사가 있다. 동성애자의 인권과 문화를 위해 지난 2월 문을 연 '이연문화' (대표 최이연)가 주인공이다. 대표 최이연과 편집장 양지용은 모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이성애자인 편집부 김길님과 함께 지난 6월 첫책 《역사 속의 성적 소수자》(케빈 제닝스 지음, 양지용 외 옮김)를 펴냈다.

"지금까지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구호와 선언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화적·사회적 차원의 텍스트 발굴 필요성 때문에 출판사를 꾸리게 됐습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한 교육용 기본교재로 이 책을 선택했지요."

이연문화의 살림을 꾸려가는 양지용 편집장의 말이다. 최이연 대표는 현재 정신적 후원자로서 집필에만



“정보를 담는 그릇으로서
책의 운명은 다했습니다.
이제 책은 소유대상으로서의
오브젝트죠. 출판산업의
측면에서는 상품가치를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험적 제작을 맡았던 《전통칠교놀이》.

합니다.”

홍익대에서 시각디자인, 미국 아트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 대학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류의 미술보다, 사람들 손에 가 닿는 책에 매료됐다. 그만큼 세상과 사람에 대한 편안하고 근본적인 이해가 미감에 앞선다고 생각한다.

“제작비 때문에 제작의뢰를 꺼리는 출판사도 있지만 출판시장에서 오히려 상품가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대량생산이라는 출판의 속성을 생각해 제작비를 낮추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도 한다. 《전통칠교놀이》(현암사)가 그 예. 옛날식 실 제본을 포기한 대신 종이는 전통대로 접어서 썼다. 삼성출판사의 <100과 사전> 8권의 기획과 제작은 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확인한 작업이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요즘은 무궁무진한 소재와 실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어린이 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 이현주 기자

“한번 입력한 책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한
영원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8편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문헌유산을 디지털자료로
만들 작정입니다.”

의 개인적인 작업이라 의욕을 따라잡기 힘들다.

“우리 아들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디지털사회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시작해도 늦은 일이지요.”

하지만 곤란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계속 모으지만, 거의 반응이 없는 상태. 또 컴퓨터 개발 초창기 우리 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까닭으로 현재 아스키파일로는 한글 고어와 한자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도 장애요소다.

“한번 입력한 책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한 영원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8편에 불과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문헌유산을 디지털자료로 만들 작정입니다. 제가 다 못하면 제 자식들이 계속하면 되는 거죠.”

그가 우공이산의 고사를 떠올리게 된 것은 자신이 전공한 분야도 아니고 대가도 없는데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의 눈초리를 보내기 때문일 것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사람들도 김씨의 꿈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안다는 말이다.

— 김연수 기자

“지금까지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구호와 선언 차원이었습니다.
문화·사회적 차원의
텍스트 발굴이 필요해
출판사를 차리고,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육용 책을 펴냈습니다.”

전념한다. 이 책은 동성애자의 역사와 함께 이른바 ‘정상인’에 의한 동성애자 억압과 동성애자들의 저항을 핵심축으로 엮어간다. 독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경제적으로 후원하겠다는 독자가도 있었고 자신의 체험담을 쓰고 싶다는 전화도 걸려왔다. 우리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의 소외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 국내의 동성애자는 대략 1백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유교문화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난민’으로 떠돌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떳떳이 밝히지 못해요. 앞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동성애자들이 성 정체성을 깨닫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최초의 동성애자 시집인 최이연의 《물오리》를 출간했다. 일본 호스트바의 실상을 파헤친 소설 《Yes, Yes, Yes》와 나치 수용소의 동성애자 회고록인 《분홍색 삼각형을 단 사람들》(가제)도 출간예정이다. ‘성 정체성’에 대한 ‘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볼 일이다.

— 박천홍 기자